

†찬미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 이지만 대부분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려진다 합니다. 그분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에 응답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당신을 따르라는 그분의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처럼 모든것을 내려놓고 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망설임없이 곧바로 그분을 따라나선 제자들의 순종과 믿음은 능동/적극적인 행동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배우고 알아가고 체험하며 더욱 굳은 믿음을 키워 그분을 알아보고 망설임없이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

## 1월 22일 복음 말씀 [(녹)연중 제3주일]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2-23<또는 4,12-17>

12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14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5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18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20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21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22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23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디오 링크입니다  <http://tinyurl.com/zckqehs>

---

## 2017년도 1월 셋째주 공지 드립니다.

### <지난 행사>

#### 2017년도 동계 수련회: 1/13/17-1/15/17 (첨부사진)

지난 주말, 2박3일(1/13-1/15) 레이크타호 청년 동계수련회에 20명의 뜨락, 하모니 형제/자매들이 최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무사히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무척 좋아 보드/스키/산책등의 야외 활동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많은 얘기와 웃음 나누고, 재미있는 게임도 즐기며, 푸짐한 음식/주류와 함께 서로 더욱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오는 밖을 배경으로 드린 토, 일 미사, 그리고 묵상과 나눔의 시간 또한 감동적 이었습니다. (최신부님께 감사 드립니다!)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 또한 물질적/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신 13분의 형제/자매님들께 (후원금 \$1,435, 맥주, 소주, 과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 신부님께서 동계 수련회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본당의 미사를 집전해주신 시몬 신부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든 동계수련회 참석 형제/자매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해주시고 보살펴주신 주님께 더욱 큰 감사 드립니다~

---

### 강보라 카타리나 자매 귀국

지난 일년동안, 새로 시작한 하모니와 함께 성장하며 크고작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온 강보라 카타리나 자매가 지난 1/16일 한국으로 귀국 했습니다. 다행히 동계 수련회에 참석해 수련회 멤버들과 조출한 송별회를 하며 새 출발에 대한 축복과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었습니다. 카타리나 자매가 한국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지낼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22일 주일 카타리나 자매가 하모니를 위해 한국 성당에 생미사를 넣었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곧 다시만날 날을 기약하며 서로 계속 연락해요~ (강보라 카타리나 자매 이메일: [bora8080@hotmail.com](mailto:bora8080@hotmail.com))

□

## 2017년 교무금 약정서

2017년 교무금 약정서(첨부파일)를 작성해 친교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세요. 개인의 형편에 따라 작은 액수라도 정성껏 책정하시면 됩니다.

## 청년 전례 봉사 - 1/29 (음력설 주일)

하모니, 뜨락회 청년 전례 봉사가 1/29 음력설 주일에 있습니다. 예물봉헌(남,녀 각 1명), 미사해설, 독서1,2 (남,녀 각1명) 에 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제공되니 부담없이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큰 은총 받으실 거예요~

## 설 합동 위령미사 - 1/29일 11시 미사

1/28일 토요일은 음력설입니다. 그리고 29일 주일날 오전 11시에 돌아가신 가족들과 조상님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미사를 드립니다. 아침 8시 미사는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혼인 공시 - 축하합니다! 🎉👰

돌아오는 1/21일 토요일날 하모니 멤버 김현경 스테파니아 자매님과 이상훈 형제님이 하느님의 축복아래 부부로 맺어집니다.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복한 성가정 이루길 기도합니다!

## <리마인더>

**10 PM 기도** 🙏 저녁 10시에 가족을 생각하며 '가족의 기도'로 **주모경**(주의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드립니다.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매일 복음서를 조금씩 접하며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합니다.

---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mailto:harmonycatholic@gmail.com)

SNS Band: <http://band.us/n/a4a8Q4J3Kf0fw>

##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tel:510-229-2464)

김정호 이냐시오 [510-299-2297](tel:510-299-2297)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el: [1-510-553-9434](tel:1-510-553-9434)

Web: [www.oakcc.org](http://www.oakcc.org)

## 4 Attachments





# 보무금 약정서.pdf

고무금 약정서

본 약정서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해하신 후 계약서에 서명하신 후 본 약정서를 본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Bidding Agreement)에 동의하신 것을 증명합니다.

일  
일  
일

서명장

본 약정서는 본 계약서의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